

어촌종합개발과 다기능 종합 어항 사업을 연계 개발키로

해양수산부 청와대 주요정책 보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총리,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대환 인하대 교수 등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당면 현안과제로 항만공사 설립, 일선수협 경영 정상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근절, 근해어업의 조업구역분쟁 조정 등 4건에 대한 대책을 보

고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자율관리어업의 정착,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 해양과학기술의 육성과 산업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보고했다. 이와함께 어촌과 해양을 연계한 관광활성화 등 4건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어촌과 해양을 연계한 관광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과 다기능 종합어항 사업을 연계 개발키로 하고 현재 제정 추진중인 어촌어항법에 해양복합생활공간 개념을 반영키로 했다. 또 어촌어항개발사업 방식을 분산투자에서 집중투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어촌관광 활성화를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아름다운 어촌 100선을 집중 홍보하고 어촌체험마을을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착수식

한국어항협회, 부산남항에서

한국어항협회는 4월15일 부산남항에서 각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착수식을 거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이미 올해 수매자금 20억원을 확보하고 그중 10억원을 협회에 위탁하여 올 연말까지 우선 부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반응이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경남 통영항, 전남 여수항 등 중요항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동중국해로 출어하는 어선들이 조업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일정금액을 주고 수매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은 쓰레기 수매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물론 해양환경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면 40ℓ 짜리 수

거용 마대당 4천원, 200ℓ 짜리는 2만원, 그 외 마대에 담을 수 없는 어망, 와이어로프 등 대형폐기물은 kg당 26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연말까지 2,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조업중에 인양된 페어망과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다시 해양에 투기하지 않도록 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막대한 수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었다.

제1회 부산관광어항 대축제 개최

부산시는 바다의 날(5월 31)을 전후해 부산시내 전 51개 어항 어민들이 참여하는 '제1회 부산관광어항 대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어항의 해양관광중심 기지화와 주민소득증대 등의 차원에서 마련된 이 축제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수협과 어촌계 등이 주관하며 해양관광 기지화를 위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부산의 대표적인 어항인 다대포항과 대변항, 송정항, 청사포항 등 전 어항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는 아름다운 어항 경진대회와 어항별 수산물 및 생선회 할인 축제, 풍어제 등 민속행사, 깨끗한 바다 환경조성 캠페인, 해상 퍼레이드, 아름다운 어항사 진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

를 선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18일 수협 임원과 어촌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계획을 설명하고 23일부터 행사 내용별 추진 업무를 분담, 5월 10일까지는 축제행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수산정책 심의위원 일반인 모집 日 수산청, 처음으로 시행 일본 수산청은 올해 2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수산정책 심의회의의 위원을 일반으로부터 모집하고 있다. 국민일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2003년 수산에 관한 시책의 기본지침이 될 「수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참가와 합의를 얻어 수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이렇듯 처음으로 수산정책 심의회의의 위원을 일반으로부터 모집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수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 국민에 대한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산업을 활력 있는 산업으로서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어촌의 진흥을 도모해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여러모로 미흡한 제가 한국어항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과거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항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해양분할과 자원자국화 그리고 해양오염과 자원고갈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수산업의 기반인 어항어촌 역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어항어촌을 개발해 왔으며, 협회는 협회차원에서 어항어촌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수산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어촌어항정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과 인근어장을 연계 개발하여 활력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어항정비법의 제정 시



한국어항협회 회장 배 평 암

행과 함께 우리 협회도 '한국어항어촌협회'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협회의 업무영역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다져온 협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어항어촌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협회를 구심체로 회원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는 이번이 수산업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러한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움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하시는 일에 발전 있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촌·어항·어장이 어우러져야

2003년도 국가어항건설공사 순조

4월25일 현재 총 65건 중 43건 착공

해양수산부는 2003년 주요 국가어항 시설사업 총 65건 공사(1천474억2천500만원)중 66%에 해당하는 43건 공사(1천339억9천200만원)를 발주완료 하였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어항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4월 25일 현재 착공된 어항은 부산의 대변항을 비롯, 여수의 여호항, 마산의 지세포항, 울산의 정자항, 동해의

거진항, 군산의 어청도항, 목포의 득암항, 포항의 구산항, 제주의 모슬포항, 대산의 남당항 등 42개항 43건이다. <표는 2면 참조>

어항청소선 소식

5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5.12~17 5.26~31	위도 구시포	최동립	011-247-5592
어항 902호	5.12~17 5.26~31	안마 도계마	김용익	011-243-5590
어항 903호	5.12~17 5.26~31	녹동 소안	조동식	011-230-5591
어항 904호	5.12~24	감대	박주종	011-232-5596
어항 905호	5.12~17 5.26~31	광암, 성포 능포, 지세포	하용만	011-247-5593
어항 906호	5.12~17 5.26~31	구산 읍천	김성훈	011-247-5594
어항 907호	5.12~17 5.26~31	남애, 사천 묵호	최일선	011-243-5597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 바다 바다 오염된 후 후회 말고 청정수역 보전하자

어찌 보면 참으로 '해괴한 수매'가 아닐 수 없다. 해양 쓰레기 수매라니.

그렇다. 우리의 수산업은 지금 연안국의 해양분할과 자원 자국화 정책, 그리고 해양 오염, 자원 고갈 등 대내외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각종 오염 물질과 어업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해양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때 문전 옥답으로 일컬어지던 우리의 황금 어장이 하루가 다르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한해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이 무려 15만2천 톤으로 추정될 정도라고 하니 이제 해괴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해양 쓰레기 수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바다는 해양 쓰레기로 중증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해양 쓰레기가 단순히 물고기들의 서식환경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바닷속에 널려 있는 폐어망 폐비닐 등 각종 해양 쓰레기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해난 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방치하고 나몰라라 했던 해양 쓰레기가 어느새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목을 노리며 되돌아오고 있음을 모두

깊이 인식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 시책으로 한국어협회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의 해양환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결국 뿌린 자가 거둔다는 심정으로 우리 어업인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됐음을 반성하고 이 일에 너도나도 다함께 적극 동참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0억 원 을 투입, 약 2천 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매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약 1천5백 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제도가 효과가 있을 경우 앞으로 연근해 해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선주와 선장, 승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기막힌 발상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작은 실천이 아닌 우리의 바다를 문전 옥답으로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환경과의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환경이 마치 인간에게 복수라도 하듯 우리에게 칼날 같은 매서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의 바다만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예전과 같지 않다고 슬회하고 있지 아니한가.

바다의 쓰레기를 없애는 작업은 이런 의미에서 작지만 가장 친환경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멀리 떠난 각종 어족자원들이 되돌아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해양 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되돌려 놓아 함부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지혜를 함께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을 이번을 계기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소득임이 틀림없을 것 같다.

우리 모두 해양 쓰레기를 없애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

쓰레기도 치우고 돈도 벌고

사실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조업중 인양된 각종 해양 쓰레기를 '재수없다'며 도로 바다에 던지지 말고 이를 항구로 되가져오면 되기 때문이다.

이뿐이라. 이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40리터 마대당 4천원의 수매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 쓰레기 치워 바다 오염 막고, 돈까지 받으니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다.

인 이 사업은 어찌보면 창피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경우 모두가 깜짝 놀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웃음거리도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귀찮은 작업에 비해 받는 돈이 적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은 실천이 나부터, 지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의 바다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간이 될

2003년도 국가어항 시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63개항 65건

지방청	항 명	사업량(m)	예산	도금액	착공일	준공일	시 공 자
합계	63개항		147,425				
부산	대 변	남방파제 상69	6,500	5,200	3.11	12.31	(주)부흥
인천	3개항		5,967				
	선진포	동방파제100, 보강1식	3,000	3,000	3.17	12.31	삼성물산(주)
	울 도	서방파제 상50, 보강230	2,400	2,400	4.10	12.9	송우건설(주)
	덕적도	포장12,200㎡	567				
여수	10개항		24,000				
	여 호	남방파제 하26.4 투기장호안 하187 선양장 하30 부대공 1식	4,000	3,987	2.3	12.30	세운건설(주)외 2개사
	시 산	도제 상14 호안 상60, 매립 1식 부잔교 1식 준설 1식	2,000	1,761	3.4	12.29	금광기업(주)
	국 동	물양장 축84, 상70.5 보강 1식, 돌제보강 1식 선착장 하35	2,500	1,980	2.26	12.22	남화토건(주)
	남 도	파제 축70, 상84 물양장 축23, 상65 등대 1기	4,000	2,960	2.25	12.22	(주)대아건설
	초 도	남방파제 상61, 상두1 하39, 하두1, 등대1기 여객부두 상50 물양장 축80, 상70	4,500	3,503	3.3	12.28	영진건설(주)
	회 진	투기장 호안	1,000				(주)대림건설
	녹 동	물양장 호안	1,500	1,500	4.8	12.31	금광기업(주)
	풍 남	물양장 준설	2,000	1,692	3.31	12.31	건화건설(주)
	내 발	방파제	1,500	1,500	4.8	12.31	호원건설(주)외 2개사
	연 도	투기장 호안	1,000				
마산	9개항		19,040				
	지세포	서방파제 상35	3,500	2,940	3.13	12.31	성보건설(주)
	원 전	서방파제 50	1,000	1,000	3.18	9.14	포스코건설(주)외 4개사
	맥전포	서방파제 33	2,240	1,778	2.13	11.9	대양종합건설(주)
	삼 덕	수계선정비 365	3,000	2,273	3.27	04.1.20	우림종합건설(주)
	매물도	서방파제 두부1식	4,000	3,422	2.28	12.31	(주)대능
	광 암	방파제 20	2,000				(주)부흥
	구조라	남방파제 상21	2,000	2,000	4.18	12.13	우림종합건설(주)
	물 건	호안 220	300				
	미 조	호안도로 121	1,000	1,000	4.4	12.29	동현건설(유)
울산	2개항		3,283	2,831			
	정 자	도제 40	2,000	1,548	3.31	12.30	(주)부흥
	방어진	하수관로 670	1,283	1,283	2.17	2.17	울산시 위탁
동해	4개항		9,858				
	거 진	물양장개축 236 방파제 보강25	1,358	729	2.20	12.31	섬강종합건설(주)
	공현진	동방파제 240	4,000	3,166	2.10	12.31	태원건설(주) (주)동양고속 (주)새건설
	안 목	남방파제 60	3,000				
	임 원	북방파제 상47 남방파제 30	1,500				선경건설(주)
군산	3개항		8,100				
	어청도	동방파제 상두1식	4,100	3,686	3.5	12.31	케이퍼건설(주)
	구시포	연육도로	2,000	1,797	3.25	12.19	(주)대한토건사

지방청	항 명	사업량(m)	예산	도금액	착공일	준공일	시 공 자
	격 포	후면매립 1식 준설 1식	2,000				
목포	9개항		26,500				
	소흑산도	방파제보강 27.65m 보조방파제 하부1식 소파호안 127m 물양장 108m	8,000				삼부토건(주)
	득 암	동방파제 상치1식 서방파제 상치62m 상78m 하101m 석산복구 1식	3,500	3,210	1.23	12.18	금광기업(주)
	도 장	물양장 하22m 호안 하30m	1,000	917	2.11	10.8	진양건설(주)
	청산도	물양장 상115m 호안상부 48m	1,500	1,302	1.27	11.22	가산토건(주)
	보옥1차	남방파제 상38m	3,500	3,216	1.23	11.18	남광건설(주)
	여 서	도제 상부1식 호안도로 1식	4,800	4,800	4.21	12.31	금광기업(주)
	우이도	준설 1식	200	200	4.21	7.19	동인개발(주)
	서거차	준설 1식	1,000	1,000	4.25	10.24	한라건설(주)
	마 랑	호안개축 78	1,500				
	보옥2차	물양장 상20m	1,500	1,422	4.1	11.26	남광건설(주)
포항	12개항		22,540				
	현 포	물양장 68 호안 155	2,000				동화건설(주)
	죽 변	돌제 40	1,000				
	오 산	북방파제 36 물양장 100	2,500				태림종합(주)
	구 산	북방파제 66	5,000	3,182	3.20	12.31	학산건설(주)
	강구1차	물양장 65	500	500	4.3	10.29	경향건설(주)
	대 보	도제 62	2,000	2,000	3.3	12.27	동영토건(주)
	양 포	방파제 보강1식	2,000	1,614	2.25	10.22	갑을건설(주)
	감 포	북방파제 54	2,000	1,784	2.25	12.21	갑을건설(주)
	대 진	북방파제 44	2,000				(주)삼건사
	강구2차	물양장 65	500				경향건설(주)
	구 계	물양장 40	280				
	저 동	북방파제 보강1식	760				강동건설(주)
	남 양	남방파제 30	2,000				
제주	3개항		5,747				
	모슬포	방파제 53.5	2,000	1,745	2.17	10.14	(주)신광종합건설
	위 미	물양장 100 여객부두 1식	1,747				
	하 효	방파제 30	2,000				
대산	7개항		15,890				
	모 항	남방파제 105	5,000				성우건설(주)
	남 당	방파제370, 호안 218 부대공 1식	4,000	4,000	2.4	12.31	(주)한국종합외 4개사
	안 흥	해안정비 하38	1,000	659	1.30	8.27	활림건설(주)
	오 천	물양장 24.6 상68.4 선양장 상30, 도로포장100 기존잔교철거	1,890	1,656	2.13	12.9	활림건설(주)
	삼길포	방파제 60	1,000				
	외연도	물양장 하37 준설 20천㎡	1,500	1,500	4.17	12.12	동보건설(주)
	홍 원	물양 하80 선양장 1식	1,500	1,500	4.8	04.1.2	동방건설(주)

동

정

울산·마산지역 순시 현장 점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7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해양수산업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9일에는 국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 10일에는 울산지역을 순시하고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 11일에는 농어업,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16일에는 스페인 전 부수상을 접견하고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 18일에는 마산지역을 순시하고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광양항의 LME 지정장고 준공식에 참석, 21일에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환담 이어 WTO, DDA 민관합동 포럼에 참석, 23일에는 광주 KBC 생방송 '바다는 광주, 전남의 미래인가?'에 출연, 28일에는 로크민 다후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환담.

▲배평암 한국어항협회장은 4월2일 신입인사차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하고 관계관과 현안사항을 협의, 14일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산하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 15일에는 부산남항에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착수식을 거행, 23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물공통실무과정에 대해서 강의, 25일에는 서울지역 주요 시공회원사 대표 오찬간담회를 주재.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3월27일 임시총회에 참석, 4월1일 창립 41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새어업인상' 시상식에 참석, 7일에는 대전시 유성에서 열린 '충청조합장협의회'에 참석, 18일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농어촌 대책 T/F 현판식에 참석, 19일에는 인천수협 관내 무의도를 방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전복 및 다시마

시험양식장을 답사, 21일에는 경남 육지수협 수산물 냉동·냉장공장 준공식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4월9일 사회복지공동모금 관련 청와대 초청오찬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9일 한국자유총연맹 임원간담회에 참석, 13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 16일에는 한국농림협회 주관 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7일 백범 김구 선생 나의소원전 순천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운영위원회에 참석, 11일에는 범죄예방위원 광주전남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15일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남도지회 이사회에 참석, 18일에는 장애인익날 기념 복지실천대회에 참석, 19일에는 유네스코광주전남학생연합회 전진대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4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이어 대한건설협회 회장단회의를 주재, 8일에는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문화수도육성 추진위원회에 참석, 11일에는 조달청장 초청간담회에 참석, 14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 참석.

인 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인사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장 이상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장 장철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장 정도훈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장 김석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파견 라인철 △사무관급 인사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현기진 △항만

국 항만정책과 이규용 △항만국 항만개발과 김성환 △항만국 항만건설과 정태욱 △"송주민 △항만국 민자계획과 손형모 △항만국 기술안전과 박홍남 △" 남재현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손영대 △안전관리관실 해양방재담당관실 장근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동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 이시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홍승호 △" 김태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황상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최재학 △" 신종명 □과장급 인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윤영호 △" 항만공사과장 류시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정진관 △" 어항공사과장 황철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구양희 △" 항만공사과장 김종열 △" 어항공사과장 조영원(4.9)

□사무관급 인사 △차관실 이정희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광룡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이남교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김준곤 △기획관리실 비상계획관실 장영철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정창원 △" 안치국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 권순욱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정상윤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김진섭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황중우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장재동 △해운물류국 선원노동과 이인수 △" 이준용 △" 홍중해 △해운물류국 항만운영정보과 윤현수 △" 심성태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김혜정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노진학 △" 박신철 △" 박성우 △수산정책국 어업기술인력과 이화영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최철진 △" 김보열 △어업자원

국 양식개발과 강호권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김태기 △공보관실 신연철 △총무과 오신기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담당관실 남광률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실 박민규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실 최경삼 △" 조성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손건수 △국립수산물과학원 오광석 △국립해양조사원 김옥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강운석 △" 주두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종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홍경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정수 △" 노귀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김영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수산물관리소장 임여호(4.3)

□과장급 인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산물과장 정준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홍수산물관리소장 이금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산물관리과장 김양섭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수산물과장 박균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부안수산물관리소장 정태준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수산물과장 김대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수산물관리소장 고금선(3.27)

□서기관급 인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변진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박용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정봉섭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홍식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부원찬(3.26)

□국장급 인사 △공보관 신병식 △안전관리관 오공균 △수산정책국장 장맹수 △국립수산물과학원 연수부장 이용수 △국립해양조사원장 김형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재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한준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덕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심호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임기택 △해양수산부 이광로 △" 정이기 △" 양병관 △

" 최장현(3.26)
▲본회인사 △해양쓰레기수매사업소 소장 박갑선 △" 사무장 정병규 △" 이일량 △" 김민

의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
▲김진열(전 수산청 과장)
▲김영환(전 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주 소 변 경

▲정택씨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1722 신도브래노 아파트 103-1004호, 전화번호 동일

부 음

▲정택용씨(주식회사삼건사 회장)는 4월7일 부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대정지곡.



■ 한국어항협회는 4월 15일 부산남항에서 각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착수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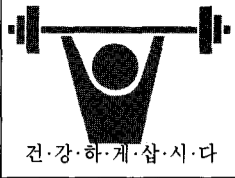
행복의 시작...

가족사랑
7종신공제

- 실제금리(공시이율)을 반영하는 변동금리형 종신보험 금리 하락시에도 연5.0%의 최저금리보장
- 저렴한 공제로 평생동안 모든 사망(제1급 장애포함)을 보장함으로써 유가족 생활안정 도모
- 고객이 원할 경우 연금으로 전환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보장
- 다양한 특약의 임의 부가로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공제금 증액 가능

공제(보험) 기원은 수협공제로

수협공제(보험)
www.sunhyup.co.kr



물 하루 8잔 꼭 마시세요

취침전-기상후 한컵 가장 좋아

'좋은 물을 마시면 아내를 과부보 만들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해'이다. 세계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몸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인체의 70%를 구성하는 물이다.

의학적으로도 물을 많이 마시면 질병 예방은 물론 감기, 결석, 변비를 치료하고 암 발생위험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물, 어떤 기능을 하나

성인은 몸의 60~70%가 물로 이뤄져 있으며 갓난아기는 85% 이상이 물이다. 예를 들면 70kg의 체중을 가진 성인은 약 42kg의 물을 가지고 다니는 셈이다.

물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내에서 수분이 1~2%만 없어지면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낀다. 또 5%를 잃으면 반혼수 상태에 빠지며 12%를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인간은 매일 2.6ℓ 씩 일상 동안 60t의 물을 세포의 물대사에 소비한다.

물은 우리 몸 속에서 영양분 흡수에 도움을 주며 체온조절, 소화촉진, 혈액순환 향상, 독소와 가스 방출, 산소운반, 체형과 신체 균형 유지, 음식물 이동과 관철의 용매 역할 등 생명 유지에 필수작용을 하고 있다.

때문에 화상을 입었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화상 자체 보다는 그로 인한 수분의 손실이다. 세포에 수분이 부족하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또 식중독,

전염병, 급성 장염 등 설사의 원인이 되는 병에도 물이 탈수를 막는 기능을 한다.

■ 얼마나 마셔야 하나

하루에 물은 어느 정도 마셔야 할까. 일반적으로 성인남성 기준 하루 여덟 잔 가량의 물을 마실 것이 권장되고 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섭씨 20~25도가 좋다. 사람의 몸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혈액과 영양분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노폐물이 많다. 때문에 물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컵, 아침에 눈뜨자마자 한 컵을 마시는 게 좋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생수는 위벽에 잔존하는 노폐물을 씻어줘 위장 기능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식사 직전 혹은 도중에 물을 마시면 위 속의 소화효소나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식전 30분에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은 천천히,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는데 급히 마시면 위가 늘어져 소화불량 증세를 보일 수도 있고 복부팽만감으로 입맛도 떨어뜨린다.

술자리에서도 물을 마시면 알코올이 희석되고 오줌을 통해 배출돼 간의 부담이 줄어든다. 운동을 할 때도 자주 수분을 보충해준다. 운동하는 도중 물을 마시면 살이 찐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손이나 얼굴이 붓고 살이 찌지는 않을까. 몸이 붓는 것은 수분이 한곳으로 몰리기 때문인데 이를 막으려면 신장의 이노기능을 원활하게 해 수분을 배출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수술자리에서도 물을 마시면 알코올이 희석되고 오줌을 통해 배출돼 간의 부담이 줄어든다. 운동을 할 때도 자주 수분을 보충해준다. 운동하는 도중 물을 마시면 살이 찐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손이나 얼굴이 붓고 살이 찌지는 않을까. 몸이 붓는 것은 수분이 한곳으로 몰리기 때문인데 이를 막으려면 신장의 이노기능을 원활하게 해 수분을 배출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술자리에서도 물을 마시면 알코올이 희석되고 오줌을 통해 배출돼 간의 부담이 줄어든다. 운동을 할 때도 자주 수분을 보충해준다. 운동하는 도중 물을 마시면 살이 찐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손이나 얼굴이 붓고 살이 찌지는 않을까. 몸이 붓는 것은 수분이 한곳으로 몰리기 때문인데 이를 막으려면 신장의 이노기능을 원활하게 해 수분을 배출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77)

第5章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철근, 거푸집, 기타(앵커볼트, 인서트메탈 등의 매설쇠장식)가 설계에서 정해진대로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보공의 검사·확인을 한다. 또 콘크리트 운반설비, 타설설비, 거푸집안을 잘 청소하여 나무조각, 묶음선 등의 잡물이 콘크리트에 혼입하지 않도록 한다. 타설한 콘크리트의 수분이 거푸집에 흡수되면 양호한 마무리 면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흡수의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청수로 습기차게 해두는 등의 처치를 한다.

② 타설

콘크리트는 입경이나 비중이 다른 재료의 집합이고 다른 종류의 처분을 분리시키는 혼합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타설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타설작업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거푸집안을 충전하여 철근 등과 충분한 부착을 유지시키고 균질한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일이다. 타설에 있어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다음 점에 주의한다.

a. 콘크리트는 취급할 때마다 재료 분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곳에 다져서 쳐넣고 거푸집안에서 진동기 등으로 유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리잡을 위치에 최초부터 쳐넣는다. 벽이나 보와 같이 가늘고 긴 구조물에서는 가급적 많은 투입구를 설치하고 스텝과 같은 넓은 구조물에서는 보판(footboard) 등을 배치하여 타설장소를 많이 한다.

b. 콘크리트는 경사 슈트에서 직접 흘러서 속에 집어 넣거나, 타설중도에

철근이나 거푸집의 측면에서 급히 방향이 변화되면 비중이 무거운 세골재가 분리되므로 낙하시킬 때는 가급적 수직으로 낙하하도록 누두관 등을 이용한다.

c. 콘크리트를 높은 위치에서 타설하면 재료가 분리되거나 철근이나 거푸집에 악영향을 미친다. 거푸집이 높은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상부의 철근이나 거푸집에 부착하여 균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의 적당한 곳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풍슈트나 펌프 배관의 토출구를 타설면 근처까지 내려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슈트, 펌프 배관, 버킷 등의 토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d. 타설중에 재료분리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새로 개어 타설한다. 재료분리가 뚜렷할 경우는 새로 개어 균질의 콘크리트로 만들기 곤란하므로 타설작업을 그만두고 재료분리의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의 수단을 강구한다. 또 타설한 콘크리트의 조골재가 분리하여 모르타르분이 적은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분리한 조골재를 퍼올려서 모르타르가 충분히 있는 콘크리트안에 묻고 다짐한다.

③ 타설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 형상, 크기 등

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타설순서를 결정한다.

넓은 면적을 갖는 구조물로서 콘크리트의 운반로가 타설면적안에 포함될 때에는 한번 다져넣은 콘크리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반입구에서 먼 장소로부터 가까운 쪽을 향해서 타설하도록 한다. 이어붙기 이음은 구조물에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타설한다.

달아낸 부분을 갖는 구조물이나 슬랩(slab)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구조물에서는 단면이 다른 부분에서 콘크리트의 침하정도 차로 균열이 생기는 일이다. 이 때문에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말고 벽 또는 기둥 콘크리트의 침하가 정착된 다음 슬랩 또는 보 등의 상층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또 기교의 보나 슬랩 등의 상층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지보공의 침하, 변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보공 주위의 중앙부근을 지주를 향해서 타설한다. 참고로 교각 및 상판 콘크리트 타설순서를 그림 5.4.2에 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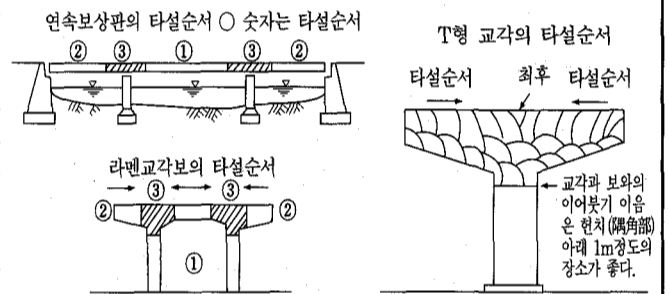


그림 5.4.2 콘크리트의 타설순서

각종 은행수수료 종류에 따라 최대 8.3배 차이

각 은행 수수료 천차만별, 잘못된 수수료 공시하기도

최근 각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같은 서비스라도 은행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 은행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체계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17개 은행의 수수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간 수수료 차이가 청구송금의 경우 최대 2배, CD기 계좌이체의 경우 최대 8.3배까지 차이가 나고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 이용수단에 따라서는 7.9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청구송금 수수료 최대 2배, CD기 이체수수료는 최대 8.3배 차이

△ 청구송금수수료, 10만원 이하의 농협이 낮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조흥·하나·농협이 가장 낮아 창구를 이용해 타행송금할 경우 송금액 10만원 이하에서는 농협이 1,000원으로 지방은행을 제외한 조사대상 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우리은행이 1,500원을,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두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지방은행 제외). 100만원 이상 송금시에는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조흥·하나·농협이 3,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국민·기업·신한·외환·한미은행이 4,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CD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100만원 이하의 농협이 낮

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제일·조흥·농협 등이 가장 낮아 자기은행 CD기를 통해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농협이 500~1,000원으로 가장 저렴해 최고 수수료(1300원)와 비교시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100만원 이상일 때는 제일·조흥·농협 등이 2,000원, 지방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2,400~2,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 타행 CD/ATM기 이용한 이체 수수료, 수수료 차이는 최대 8.3배로 국민·기업·부산·광주은행 및 농협은 타행 CD/ATM기를 이용하더라도 해당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타행이체 수수료보다 낮은 300~1,400원을 받는 반면, 나머지 은행은 타행이체 수수료와 구분없이 500~25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최대 8.3배까지 수수료가 차이가 났다.

※ 타행 CD/ATM기 이용시 기기 설치은행과 상관없이 이용자가 거래하는 계좌개설은행의 수수료가 적용됨.

△ 송금수수료는 은행창구, CD/ATM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순으로 비싸 같은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창구를 이용하면 최소 4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CD/ATM기(영업시간 내)나 홈뱅킹을 이용하면 수수

료 없이 송금 가능하다.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은행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순으로 수수료가 높았다. 은행창구 이용시 인터넷뱅킹보다 3.8배에서 7.9배까지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평균수수료 기준).

□ 대금추심료, 담보조사수수료도 은행간 수수료 차이 커

△ 타지·타행에서 발행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 부과하는 대금추심료의 경우 은행마다 수수료 차이가 매우 컸다. 농협·제일·하나은행의 경우 자기앞수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반면, 다른 은행들은 최고 10,000원까지 수수료를 징수한다. 당좌수표 및 어음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최저 2,000원에서 최고 12,000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 담보조사수수료는 담보조사수수료는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파악해 적정 담보가액 산출을 위한 조사에 수반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꼼꼼히 비교해 보아야 한다. 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은 부동산 시가에 관계없이 건당 30,000~4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나머지 은행은 추정시가(또는 감정가액)나 대출금액의 일정비율(0.02%~0.05%)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한다.후자의 경우 부동산 시가나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담보조사수수료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출금액 5천만원, 부동산 감정가액을 3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수수료가 최

■ 청구송금수수료(*는 타행)

은행명	금 액 구 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국민	1000	2000*				2000	4000*	
기업	1000	2000*				2000	4000*	
신한	1000	2000*				2000	4000*	
우리	600	1000	1500			2000		
	1500*	2000*				3500*		
외환	1000	2000*				2000	4000*	
제일	1000	2000*				2000	3500*	
조흥	1000	2000*				1500	3000*	
하나	1000	2000*				1000	3000*	
한미	1000	2000*				2000	4000*	
농협	800	1000				2000	3000*	
	1000*	2000*				2000	3500*	
수협	1000	2000*						
대구	500	900		1300			1500	3500*
	1000*	2000*		3000*				
평주	700	1000				2000		
	1000*	2000*				3000*		
부산	800	1000				2000		
	1000*	2000*				4000*		
경남	600	1000		1500			2000	
	1000*	2000*		2500*		3000*	3500*	
전북	500	1000		1500			2000	
	1000*	2000*		2500*		3000*		
제주(당지)	400	700	900	1000	1100	1200	1300	
	800*	1400*	1800*	2200*	2400*	2400*	2600*	
타지	1300*	2000*	2500*	4500*	5000*	6000*	7000*	

저 30,000원에서 최고 90,000원까지 차이났다.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수수료 공시, 공시미비 또는 내용상 오류 많아

△ 17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CD/ATM기를 조사한 결과 실제 적용 수수료보다 낮게 표시하거나, 과거 수수료가 공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 생활 정보

● 생활 정보